

## 자아의 재발견

옛날 회랍의 플라톤은 인간은 진리를 가진 것도 아니요, 가지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역설을 말했다. 사람이 진리를 가졌다면 더 이상 진리를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만일 진리를 가지지 않았다면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진리를 추구할 수도 없지 않는가 하는 이론을 전개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진리를 좇는 것은 진리를 가졌다거나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의 맛을 미리 보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사람은 진리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진리를 아는 것이 신앙의 첫 시작이라 하겠다.

옛날 여리고 마을에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었다. 그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 유대인에게서 될 수만 있으면 무거운 세금을 짜내는 일을 맡았다. 그는 이렇게 짜낸 혈세 중 소정의 액수를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가 가로채어 치부하는 직업적인 세리였다. 땀을 흘리지 않고 유대인의 재산을 중간 착취하는 일종의 불한당이였다. 그는 유대인의 공동체의 맥박을 진단해서 숨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짓눌려서 재산을 빨아가는 기술을 터득한 사람이었다. 그러기에 그는 민심의 동향에 예민했고, 유대인이 어느 정도로 참고 견딜 수 있는가 하는 최후의 한계선을 진단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유대인 공동체에게는 배반자요 증오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인간 삭개오 자신은 이런 <미움을 피부에 느끼면서도 누물과 땀의 결정을 강탈>하는 일을 계속했을 것이다. 민중의 눈초리, 말없는 저주를 알면서도 혈세를 거두어 가는 그는 사실상 가장 자신을 미워

하는 자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몰랐을까? 자기 증오에 가득 찬 비굴하고도 왜소한 인간, 몸쓸 짓을 하는 자신을 비웃어가면서도 열등감을 이겨내지 못한 삭개오! 땀을 흘리지 않고서 남의 재산의 일부를 가로챈 행위에 비굴한 웃음을 짓는 삭개오는 이기주의자이면서도 자신을 가장 미워한 자였다는 역설이 나온다.

열등감과 자기 증오에 가득 찬 삭개오에게 예수께서 말을 전베시고 하룻밤 주무시겠다고 했다. 빼뚫어진 인간, 비굴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일에서 일종의 쾌감을 느꼈던 인격 파탄자에게 예수께서 괴곤을 풀 안식처를 부탁한, 이상한 광경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프랑스의 역사학자 Jacques Ellul은 <혼란과 마비의 중간 시대>라는 글 가운데서 현대의 혼란과 동결 상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한 개인이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것 밖에 없다고 단언한다(Christian Century June, 1968).

그는 또 WCC의 교회와 사회의 방향은 그릇된 것이라고 부언하면서도 이러한 개인의 재발견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 밖에 없다고 한다.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는 즉 진리를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신앙을 추구하는 구도자의 태도, 그것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이자 작크에를이 말하는 개인의 자아 발견을 시도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닐까? 신앙의 영역에서는 정말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깨뜨리는 근본적인 힘이 바로 경제의 바탕이자 주체인 인간이 자기 발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